

김 자 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헤어칼라에 따른 헤어스타일 및
메이크업 성향에 관한 연구

2004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스타일리스트학과

안 주 영

논문개요

토탈패션으로서의 패션, 메이크업, 헤어는 색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색상의 조화는 점점 더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본 연구는 헤어칼라와 헤어스타일 및 메이크업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헤어, 메이크업 칼라는 어떠한 지를 살펴보고 헤어칼라에 따른 헤어스타일 및 메이크업의 성향을 분석하여, 현대 소비자의 다양해져가고 있는 헤어칼라의 경향 속에서 헤어칼라 트렌드(Trend)와 개인 이미지가 고려된 헤어칼라 색상의 도출, 헤어칼라에 따른 헤어스타일 및 메이크업 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강릉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여성 604명을 대상으로 2004년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설문조사 하였고,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설문지를 활용한 질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Chi-square 검증을 하였다.

헤어칼라에 따른 헤어스타일 및 메이크업 성향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헤어칼라에 대한 선호도는 블랙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브라운, 다크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 골드 브라운, 부분 탈색, 레드 브라운, 원색계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블랙을, 연령이 높을수록 브라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기혼 여성은 미혼 여성보다 다크 브라운을($p < .05$), 직업별로는 학생들의 경우는 블랙을, 주부는 브라운을, 판매영업직/서비스직 여성은 오렌지 브라운을 선호하였다($p < .05$).

2. 여성들의 머리길이는 미쁨 정도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룡, 숏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머리길이가 길었으며($p<.001$)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머리가 길었다($p<.001$). 직업별로는 학생의 경우가 머리길이가 길었으며 주부는 중간이거나 짧았다($p<.01$)

3. 헤어스타일의 유형은 스트레이트 유형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굽은 웨이브, 중간 웨이브, 롤 스트레이트, 강한 웨이브와 기타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24세 여성은 스트레이트를, 35-39세 여성은 굽은 웨이브가 많은 편이었으며($p<.001$),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굽은 웨이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학생은 스트레이트를 주부는 굽은 웨이브 유형이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4. 헤어칼라와 헤어스타일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헤어칼라에 따른 머리길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헤어스타일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헤어칼라가 블랙인 여성은 스트레이트 유형이 많았으며, 골드브라운인 여성은 굽은 웨이브 유형이 많은 편이었다.

5. 헤어칼라에 따른 메이크업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헤어칼라에 따른 메이크업 정도, 섀도우 색상, 메이크업 시 포인트 주는 부분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헤어칼라에 따라 즐겨하는 립스틱 색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헤어칼라가 블랙인 여성은 기초화장만 하며, 섀도우는 핑크계열이 전반적이나 다른 여성에 비해 블루 계열도 많은 편이다. 립스틱 색상은 투명을 많이 사용하며, 눈에 포인트를 많이 준다.

2. 헤어칼라가 다크 브라운인 여성은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네추럴하게 하고, 섀도우 색상은 브라운을 많이 사용하며, 립스틱색상은 핑크와 브라운 계열을, 그리고 눈에 포인트를 준다.

3. 헤어칼라가 브라운인 여성은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네추럴하게 하고, 새

도우 색상은 핑크와 브라운을, 립스틱은 핑크와 오렌지색상, 그리고 눈에 포인트를 준다.

4. 헤어칼라가 라이트 브라운인 여성은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네추럴하게 하고, 새도우 색상은 브라운 계열을, 립스틱은 핑크계열을, 그리고 눈에 포인트를 준다.

5. 헤어칼라가 골드 브라운인 여성은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네추럴하게 하고, 새도우 색상은 핑크계열을, 립스틱은 레드 계열을, 다른 헤어칼라의 여성에 비해 입술에 포인트를 준다.

6. 헤어칼라가 오렌지인 여성은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네추럴하게 하고, 새도우와 립스틱색상은 핑크계열을 많이 사용하며, 눈에 포인트를 준다.

7. 헤어칼라가 부분탈색인 여성은 기초화장만 하는 여성이 많으며, 새도우 색상은 브라운색상을, 립스틱색상은 핑크 색상을, 입술에 포인트를 준다고 나타났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헤어, 메이크업 성향이 네추럴하게 나타난 것은 최근 웰빙(well-being)이라는 문화적 흐름으로 인하여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주의적 성향이 트렌드(trend)로 자리 잡음으로써 헤어와 메이크업도 깨끗한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연한 색조를 이용한 자연스런 칼라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헤어와 메이크업은 그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 스타일이 다양하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듯 그 시대의 트렌드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헤어와 메이크업의 칼라를 적절하게 조화시킨다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물론 한층 더 세련된 모습으로 변화 될 것이라고 본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헤어칼라와 칼라링	3
2. 헤어스타일의 연출	7
3. 메이크업의 이해	12
III. 연구방법	20
1. 연구대상	20
2. 측정도구	20
IV. 연구 결과 및 분석	22
1. 일반적 특성	22
2. 헤어칼라 선호 조사	23
3. 메이크업 선호 조사	29
4. 헤어칼라와 메이크업 성향과의 관계	38
5. 헤어칼라와 헤어스타일 성향과의 관계	42
V. 결론 및 제언	45
1. 결론	45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48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피부톤에 따른 특징	13
표 2. 아이새도 색상과 피부색의 조화	14
표 3. 볼터치 색상과 피부색의 조화	15
표 4. 립스틱 색상과 피부색의 조화	16
표 5. 립스틱 색상과 연령의 조화	17
표 6. 일반적 특성	22
표 7. 헤어 칼라	24
표 8. 머리길이 형태	26
표 9. 헤어스타일 유형	28
표 10. 메이크업 정도	30
표 11. 즐겨하는 새도우 색상 계열	33
표 12. 즐겨하는 립스틱 색상 계열	35
표 13. 메이크업시 포인트를 주는 부분	37
표 14. 헤어칼라에 따른 메이크업 정도	38
표 15. 헤어칼라에 따라 즐겨하는 새도우 색상 계열	39
표 16. 헤어칼라에 따라 즐겨하는 립스틱 색상 계열	40
표 17. 헤어칼라에 따라 메이크업시 포인트 주는 부분	41
표 18. 헤어칼라에 따른 머리길이	43
표 19. 헤어칼라에 따른 헤어스타일	44

그림 목 차

그림 1. 둥근형 얼굴	8
그림 2. 계란형 얼굴	9
그림 3. 사각형 얼굴	9
그림 4. 마름모형 얼굴	10
그림 5. 타원형 얼굴	11
그림 6. 역삼각형 얼굴	11

1. 서론

고도로 발전된 현대 산업 사회에서 생활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인간은 기본적 욕구 외에도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었다. 아름다움은 형태와 색채와 재료의 미가 종합되어 생기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눈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 형태와 색채이다.¹⁾ 화장이나 의복을 매개체로 한 인간의 색채 활동은 신체의 아름다움이나 매력성의 강화 등 미적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행하여진다.²⁾ 최근에는 변화가 쉬우며 다양한 자기 연출이 가능한 헤어나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자신의 개성표현, 유행의 물결속에서 전체적으로 토탈 패션화 되어가고 있다.³⁾

색상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현대의 토탈 패션에서는 모발 색상에서도 대담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자신의 기호와 의상,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의 분위기에 따라 모발 색깔을 바꾸는 것은 토탈 패션시대에서 당연한 추세이고,⁴⁾ 이는 단순한 염색 차원이 아닌 패션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⁵⁾ 이렇게 볼 때 모발 색상과 메이크업 색상을 분리하여 생각 할 수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헤어칼라가 달라지면 거기에 알맞은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첫 인상의 이미지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겨진다.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관한 선행연구⁶⁾는 있으나 헤어칼라와 메이크업에 관

1) 이선주(2000)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채의 효과와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p1.

2) 이연희(2001) “색채화장이 얼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p1.

3) 김양휴(1995) “패션 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p2.

4) 황희순(1996) 「미용학개론」 청구문화사, p.111.

5) 심미자(2000) “미용 관련학과 학생들의 염색제에 대한 의식조사”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한 선행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본 연구자는 패션, 메이크업, 헤어 중에서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메이크업과 헤어를 중심으로 메이크업의 성향을 연구 하려고 한다. 헤어 칼라에 따라 달라지는 헤어스타일과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취향, 연령, 직업 등에 따라 어떤 헤어, 메이크업 칼라를 선호하고, 그 헤어칼라에 따라 헤어스타일 및 메이크업의 성향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 실제 여성들이 행하고 있는 성향에 대한 차이를 연구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연구가 다양한 헤어칼라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메이크업 색상을 찾아내어, 이를 추구하는 여성들이 트렌드(trend)와 이미지에 맞는 세련되고 자연스런 스타일로 변화될 수 있게 해 주는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헤어와 메이크업 칼라에 대한 작은 이론적 기초가 이루어지게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6) 윤소영(2001)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나경(1999) “현대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II. 이론적 배경

1. 헤어칼라와 칼라링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발의 색상과 그 안의 자연색소는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인종이나 환경 등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발의 색은 피부와 마찬가지로 멜라닌 이라 불리는 색소에 의해 결정된다. 염색은 색소를 이용한 작용이므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멜라닌 색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헤어칼라는 모발색의 3가지 유형의 색소를 만들어 주는 멜라닌 사이트에 의해 모피질 에서 형성된다. 멜라닌을 형성하는 멜라노 사이트는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 세포의 함량에 따라 모발의 색상이 달라진다. 멜라닌 색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들은 각각 다른 색을 만드는 기능이 있다. 천연모발의 색을 결정짓는 3가지 형태의 멜라닌 색소는 흑갈색과 같은 짙은 색소를 지닌 유멜라닌(Eu malanine), 붉은 색소를 지닌 트리코시데린(Tricosiderine), 황색과 같은 밝은 색소를 지닌 페오멜라닌(pheo malanine)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⁷⁾ 이러한 특성을 지닌 멜라닌 색의 종류와 그 함량에 의해 사람마다 모발색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1) 피부톤과 헤어 칼라

모발의 색은 피부색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체로 모발의 색이 어두울수록 피부의 색도 어두운 색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검은 피부의 여성은 검은색의 모발인 경우가 많고 밝은 금발은 흰 피부, 빨강 머리는 창백한 피부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

7) 김경순 외4인 「퍼머넌트 웨이브 및 헤어 칼라링」 청구문화사, p.5.

의 함유량에 따라 모발색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 헤어 칼라링의 의미

색소를 도포하거나 색소들의 혼합은 자연 모발 색과 원하는 색상의 제품선택에 따른 시술 결과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자연의 모발색상에 과학의 응용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 욕구의 예술적 행위라 할 수 있다. 헤어 칼라링은 모발에 인공색소를 착색시키는 것으로서, 모발을 자연모의 색보다 더 진하게 또는 어둡게 물들이거나 바탕색의 밝기와 같은 것으로 물들이거나 자연모의 색보다 더 밝은 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말한다.⁸⁾

3) 피부색에 어울리는 헤어칼라링

새로운 색상으로 처음 머리 염색을 할 때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 선택이 쉽지 않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염색 컬러가 자신의 피부 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와 피부색 역시 염색 칼라를 선택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나이가 들면 피부색이 창백해지는 경향이 있다. 젊은 시절 어울리던 컬러도 나이가 들면서 어울리지 않거나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나이에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다면 어색해 보일 수 있다. 자연스러운 염색 컬러를 선택하려면 컬러 카드를 얼굴에 대고 피부 톤과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는데, 이때 인공조명 보다는 자연광 아래서 선택하는 것이 정확하다. 때로는 보색을 선택하여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하이라이팅이나 염색은 모발의 특성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난다.⁹⁾

피부색에 어울리는 헤어칼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얀 피부

8) 김지호(1999) 「칼라의 법칙」 김스코리아, p.57.

9) 황현(2002) 「The Secret of Hair Up Styling」

(주)살과 문화, p.84.

대부분 어떤 칼라와도 무난하게 잘 매치가 된다. 하얀 피부색은 염색이나 코팅에서 색상 선택에 따라 여러 가지 분위기 연출이 매우 쉽다.

① 칼라링

브라운과 블랙계열로 염색하면 하얀 피부가 더욱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하얗고 청순한 느낌이라면, 블루 블랙이나 퍼플,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을 주고자 한다면 라이트 브라운 계열이 잘 어울린다.

② 블리치

너무 밝은 컬러를 하면 얼굴이 떠 보일 수 있다. 오렌지 빛 갈색, 와인 컬러로 블리치 해주는 게 좋다.

(2) 붉은 피부

울긋불긋 붉은 피부는 촌스러워 보일 가능성이 크다.

① 칼라링

컬러 선택 시에 피부의 붉은 핏기를 커버할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레드계열은 절대적으로 피해야한다. 붉은 색과 반대되는 색이 되는 그린색이 가장 좋다. 바이올렛을 띄는 차가운 색으로 염색하면 촌스러워 보이기 쉬운 붉은 피부를 세련되어 보이게 된다.

② 블리치

라이트 그린이나 딥 바이올렛이 잘 어울린다.

(3) 노란 피부

우리 한국인과 같은 동양인에게 특히 많은 피부색으로 혈색이 없어 보이면 자칫하면 칙칙해 보일 우려가 있다.

① 칼라링

얼굴톤과 같은 계열인 브라운 계열을 선택하되, 붉은 색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 붉은 색의 염색을 함으로써 노란 피부에 혈색이 보여 얼굴빛이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처음 염색을 할 때는 지나치게 밝은

칼라링을 하는 것보다 원래의 헤어 칼라톤보다 한 단계 정도 밝은 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는 변화의 폭이 커지면 어색하기도 하고, 머리에 손상이 너무 많이 가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컬러는 밝은 브라운 혹은 라이트 레드 브라운이면 좋다.

② 블리치

라이트 레드 브라운, 다크 블론드, 바이올렛 브라운, 카키가 잘 어울린다.

(4) 검은 피부

건강해 보이기엔 하나 촌스럽고 어두워 보일수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은 피부의 장점은 섹시한 표현이 잘 된다는 것이다.

① 칼라링

섹시한 느낌을 주려면 오렌지계열의 염색을 하는 것이 좋다. 혈색 없는 검은 피부는 너무 밝은 톤과 짙은 톤을 하는 것보다 브라운 계열로 염색한 후 한 단계 밝은 색으로 브리지를 넣어서 자연스러운 톤의 투톤으로 염색하는 것이 피부색을 살리고 활동적으로 보인다.

② 블리치

원래 머리보다 밝게 해주는 것이 황갈색이나 초콜릿빛 나는 갈색 류가 적당하다.¹⁰⁾

10) www.beautyi.com

3. 헤어스타일의 연출

사람은 태어날 때 얼굴형태의 40%가 형성된다. 출생에서 20살 까지 성장기에서 30%의 얼굴이 형성되고, 20~40살 쯤 이면 나머지 20%가 형성된다. 40세 이후 자기얼굴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서 나온다. 여성의 골격은 22~23세에 기본이 형성된다. 얼굴이 변해가기 때문에 이 이전 것은 본인의 참 얼굴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얼굴형에 따라 느껴지는 이미지도 다양한데, 이상적인 얼굴형을 만드는데 있어서 메이크업의 작용도 크지만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이 공통으로 좋아하는 느낌이 밝음, 깨끗함, 순수함, 청순함이다. 자유분방하고 와일드한 느낌의 헤어스타일보다는 부드럽고 지적인 느낌의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이 이미지 개선효과와 신뢰감을 준다. 연예인 헤어스타일,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특징을 살리는 개성 있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이 멋쟁이가 되는 방법이다. 스타일을 연출할 때는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디자인이 이루어져 하는데, 헤어칼라를 선택할 때 지나치게 밝은 색상은 튀어보일지 모르지만 스타일의 고급스러움이 없고 얼굴색이 어두워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부드러운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때 시간, 장소, 분위기, 의상들과 어울리게 연출하여야 한다.¹¹⁾

헤어스타일은 헤어칼라에 비해 얼굴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얼굴형을 제대로 파악하여 장점은 드러내고 단점은 커버하여 이상적인 얼굴형으로 보이게 하면 보다 세련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얼굴형에 따른 특징과 그 얼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을 정리해 보았다.

11) www.onhair.co.kr

1) 둥근형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

둥그란 얼굴은 볼에 살이 있어서 귀여운 인상을 풍긴다. 또 미간이 짙차 있어 온화한 느낌을 준다. 원형이 강조되는 얼굴로 두부의 프론트 부분과 턱선이 눈에 띄는 둥근 얼굴형은 넓이와 길이가 거의 동일한 형으로 다소 귀엽고 발랄한 분위기를 주어 나이에 비해 어려보이는 장점이 있다. 톱 부분에 볼륨을 주고 사이드부분의 볼륨을 피해 최대한 길어 보이도록 연출한다.

(1) 턱까지 내린 보브스타일로 통통한 볼을 커버하고 동시에 이마를 드러내어 얼굴이 길어 보이게 한다.

(2) 길이는 귀 위쪽, 샹기(모발 끝을 불규칙하게 쳐낸 것)를 이용하여 둥근 얼굴형을 과감하게 드러내 놓는 숏컷 스타일



(3) 짧은 cut의 경우 가는 웨이브보다 굵은 웨이브가 어울리며 모발 끝이 흐트러진 듯 한 생기가 있는 가벼운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

(4) 뿌리를 풍성하게 많이 살려주는 긴 롤스트레이트도 좋다.¹²⁾

이때 앞머리를 전부 내려버리면 가로 라인이 강조되어 더 둥글어 보이고 사이드에 볼륨을 준 웨이브 스타일은 양 볼을 더욱 통통하게 부각시켜 준다.

그림 1. 둥근형 얼굴

2) 계란형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

어느 곳 하나 거슬리는 곳 없이 매끈한 인상을 주는 형, 타원형보다 턱선

12)(2003. 11월호) "Beauty Club Magazine" p.98.



그림 2. 계란형 얼굴

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 (1) 계란형은 어떤 헤어스타일이든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선택의 폭이 넓다
- (2) 커트에서부터 긴 머리까지 잘 어울리지만 자신의 체형에 맞는 스타일을 고르는 것이 포인트이다.
- (3) 보이쉬하고 깔끔한 이미지의 커트뿐 아니라 섹시한 멋을 풍겨 강렬하게 개성을 표현하는 숏 커트도 잘 어울린다.

(4) 윗머리를 주저앉히지 않도록 풍성하게 볼륨을 주어 복고풍 스타일로 정리하고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컬을 살리면서 얼굴을 살짝 감싸주듯 내려주는 것도 좋은 스타일중의 하나이다.

이때, 업스타일을 할 때 너무 강하게 잡아 올리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앞머리가 없으면 전반적으로 얼굴형이 너무 드러나 보이므로 피하는 편이 좋다.

3) 사각형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편인 반면 고집스럽고 딱딱한 인상을 주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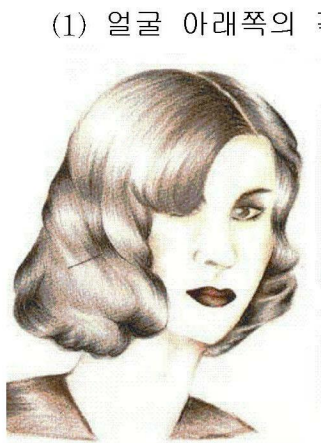


그림 3. 사각형 얼굴

- (1) 얼굴 아래쪽의 각이 시작되는 부분에 머리카락 길이를 맞춰서 턱선과 연결되는 머리 끝부분에만 웨이브를 살려주는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
- (2) 긴 머리는 어깨선 정도의 길이가 적당하다.
- (3) 눈이나 코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앞머리를 내리고 옆머리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귀를 덮어주는 것도 괜찮다.
- (4) 턱선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밑머리를 깨끗이 쓸어 올리는 업스타일로 윗머리 부분에 포인트를

주어 시선이 위쪽으로 쏠리게 하는 것도 각진 얼굴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때, 아무런 포인트로 없이 이마를 덮은 쇼트 CUT는 강한 인상을 더욱 강하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머리전체에 볼륨을 넣거나 바깥쪽으로 비치는 머리는 피해야 한다.¹³⁾

4) 마름모형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

화려한 인상을 풍기는 반면, 광대뼈로 인해 나이 들어 보이기 쉽다.



그림 4. 마름모형 얼굴

- (1) 특정한 가르마 없이 머리를 모두 모아 부드럽게 올린 후 핀으로 고정하는 업스타일이 어울린다.
- (2) 턱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얼굴 밑부분을 풍성하게 하고 머리끝을 둥글려 주면 좋다.
- (3) 초라하고 단조로운 스타일은 광대뼈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므로 그라데이션 보브스타일이 좋다. 이 얼굴형은 머리에 포인트를 주는 풍성한 느낌의 볼륨 있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해야 한다. 이때, 초라하고 단조로운 스타일은 피해야 한다.

5). 타원형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

비교적 얼굴 윤곽이 예쁜 편이지만 다소 지루해 보이는 인상이다.¹⁴⁾

- (1) 얼굴이 긴 여성은 볼 쪽으로 볼륨을 살려주는 스타일이 좋다. 이렇게 하면 가로선이 강조 되어 얼굴이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13) 황정원(2002) 「헤어셋팅」 현문사, p.47.

14) www.ci.dongkang.ac.kr



그림 5. 타원형 얼굴

(2) 긴 얼굴형에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헤어스타일은 단발 형이다.

(3) 앞머리를 잘라서 내려주면 귀여운 이미지를 줄 수 있다.

(4) 굵은 웨이브가 있는 단발로 귀 옆쪽에서 볼 쪽으로 걸쳐서 넓어지는 스타일 즉, 이 부분에 굵은 웨이브를 살려주는 스타일이 좋다. 이렇게 하면 긴 얼굴 특유의 예쁜 얼굴 윤곽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5) 강한 웨이브로 속 들어간 볼 살을 커버해 줄 수 있다.

이때, 얼굴이 완전히 드러나는 스타일, Short Cut, 머리를 깨끗이 뒤로 넘겨 묶은 스타일, Up Style, 차분한 롱 스트레이트 스타일 등은 긴 얼굴을 더욱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6) 역삼각형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



그림 6. 역삼각형 얼굴

귀에서 턱으로 내려오는 선이 둥글지 않고 샤프한 이미지를 풍긴다. 이마 폭이 넓고 양 턱의 선이 좁은 얼굴형으로 세미 롱 스타일이나 부드러운 웨이브로 이마의 넓은 부위를 커버하는 스타일과 이마를 시원하게 드러내는 스타일 등으로 연출 할 수 있다.

(1) 양끝을 살짝 말아 얼굴을 감싸는 레이어드 롱헤어 스타일로 이마를 좁게 하며 사이드는 볼 윗부분을 가능한 바싹 붙이고 아랫부분의 양감을

많게 하면 좁은 턱선을 부풀어 보이게 하여 뾰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다.

(2) 볼 부위의 라인을 자연스럽게 커버해 주는 웨이브 보브스타일.

(3) 넓은 이마는 일명 깃털머리로 넘겨 살짝 가려준다.

(4) 끝머리를 뽀치게 해서 뽀족한 턱을 커버한다.

이때, 뽀족한 턱 선을 강조하는 업스타일과 카가 작은 사람은 롱 헤어스타일을 삼가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퍼머 등으로 볼륨을 살리면 머리카락이나 얼굴이 실제보다 더 커보이게 되므로 중심을 아래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주어 키를 더 작아 보이게 한다.

3. 메이크업의 이해

메이크업이란 여러 가지 화장품과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얼굴 장점을 한층 돋보이게 하고, 결점은 감추어 아름답게 하는 창조적인 작업이고 같은 말로써 화장이라고 하는데,¹⁵⁾ 그 화장의 범위는 신체를 가꾸거나 아름답게 하기위한 포괄적인 행위이며, 좁게는 얼굴에 한정되는 뷰티메이크업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¹⁶⁾. 어떤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색이 있고 특별히 어울리지 않는 색이 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색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눈동자 색, 피부색, 머리색 등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선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피부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의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 자신의 얼굴이 한층 더 좋아 보이는 반면 그렇지 않고 자신의 피부색과 어울리지 않은 색상을 사용한 화장을 했을 경우 좋은 이미지 연출을 감소시켜 버리게 된다.

15) 이화순(1992) “한국여성의 Make-up 조형성에 관한 연구-얼굴형에 적합한 화장 색조와 선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16) 조기여(1997) “자기 효능감, 퍼스널스페이스, 의복 근접도, 화장 근접도와 의 관계”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4.

1)피부색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색을 갖고 태어나는데 포인트와 이미지를 표출시키는 데는 피부톤 특징에 따른 색상의 선택과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피부의 본래색은 손목 안쪽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푸른빛을 띠는 피부는 피부표면 근처에 혈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핑크빛이 도는 밝은 색을 사용하면 혈색이 좋아 보이게 한다. 노란빛이 많이 도는 피부색은 연한 노랑이나 베이지색을 사용했을 경우 황갈색 같은 느낌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메이크업을 위한 디자인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자기 얼굴색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이다. 즉 화장품을 고르는 일, 메이크업의 화장료를 연구하거나 패션의 컬러를 공부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표 1. 피부톤에 따른 특징¹⁷⁾

피부톤	피부 특징
흰 피부	혈색은 없으나 희고 화사해 보이는 피부
희고 붉은 피부	희면서 붉은 피부
노르스름한 피부	노르스름하고 약간 창백해 보이는 피부
질은 황갈색 피부	전체적으로 검어 보이는 피부

(1) 아이새도색의 조화

새도우는 그늘, 어둠 등을 말하는데, 아이새도우라고 불리는 화장품도 역시 눈에 음영을 만들어 주는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원래는 무대 메이크업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점차 일반화된 것이다. 아이새도우는 사용목적이 주로 눈의 존재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음영이 있는 표정미를 만드는데 있으므로 색의 선택이 중요하다.¹⁸⁾ 먼저 피부색과 아이새도 색

17) 이선주(2000)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채의 효과와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p17.

상의 자연스러운 조화와 균형을 표로 이용해 알아보고자 한다. <표 2>

아이새도와 연결되며 얼굴 표정 변화에 한 몫을 하는 눈썹이 주는 각 색상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 ① 흑색 - 개성이 강한 느낌을 주며 눈이 크고 피부가 흰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
- ② 회색 - 침착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며 자연스러워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어울린다.
- ③ 갈색 - 세련된 느낌을 주며 건강하고 약간 그을린 듯한 피부에 잘 어울린다.¹⁹⁾

아이새도 색상의 효과를 높여 주기 위하여 눈썹의 색상도 고려하여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표 2. 아이새도 색상과 피부색의 조화

색의종류	피부 색	효 과
갈 색 계	메이크업의 기본색	자연스러운 음영 및 차분한 느낌을 준다.
청 색 계	일반적으로 어떤 피부색이나 잘 어울린다.	눈을 가장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색
녹 색 계	다갈색 피부에 잘 어울린다.	건강한 인상과 젊음을 연출한다.
회 색 계	흰 피부에 어울린다.	약간 나이든 흰 피부색과 조화되어 효과를 낸다.
보라색계	핑크계, 피부색이 흰 경우에 잘 어울린다.	요염한 느낌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적 색 계	핑크계, 피부색이 흰 경우	가련한 귀여움과 젊음을 연출한다.

18) 이학재(1994) 「분장의길」 자유문학사, p.74.

19) 김희숙, 이은임(1996)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p.174.

(2) 볼터치색의 조화

볼터치는 안색을 좋게 하고 건강하게 보이기 위해 사용되며 사용색상에 따라 메이크업의 분위기를 개성 있게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부색과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볼터치 색상에 따른 느낌은 크게 핑크계, 오렌지계, 브라운계로 나눌 수 있으며 색상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 ① 핑크계 - 우아하고 여성다운 느낌
- ② 오렌지계 -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느낌
- ③ 브라운계 -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

볼터치와 립스틱의 색상을 같은 색상으로 연결하여 주는 것은 통일 원리를 살리려는 것이나 혈색소를 보완하는 뜻에서 얇게 쓰이는 것이므로 볼터치를 지나치게 바르면 메이크업을 실패로 이끌어 버린다. 왜냐하면 전체의 조화와 균형상 그곳의 채도를 너무 올렸기 때문이다.

볼터치 색상과 피부색에 어울리는 립스틱 색상을 <표 3>에 정리해 보았다.

표 3. 볼터치 색상과 피부색의 조화

볼터치 색종류	피부 색	립스틱 색상
핑크계열	희고 화사해 보이는 피부	핑크, 퍼플계
오렌지 계열	약간의 황기미를 띄는 피부	오렌지, 코랄
브라운 계열	다갈색 피부	브라운, 레드 브라운

(3) 립스틱색의 조화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어느 시대에서나 눈과 입술이라는데 동의할 것이다. 얼굴의 표정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입술색’이라는 데도 마찬가지로

것이다. 입술색은 보는 이의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입술 이미지의 색을 선택’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립스틱 색상이 주는 이미지는 아래와 같고, 피부색과 조화되는 립스틱 색상을 표를 이용해 알아보자. <표 4>

- ① 레드 - 대표적 컬러. 정열, 매혹의 대명사로 가장 어른스러운 색상이며, 지적이고 엘레강스 하다.
- ② 핑크 - 온화하고 청초하고 귀여운 느낌. 가장 여성스럽다.
- ③ 퍼플 - 침착하고 로맨틱한 분위기 연출. 은은한 인상을 준다.
- ④ 오렌지 - 발랄하고 활동적이다.
- ⑤ 브라운 -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느낌. 연한 색상은 눈에 띄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아주 진한 색상은 세련되고 특별한 이미지를 주기도 한다.

표 4. 립스틱 색상과 피부색의 조화

피부색	흰 피부	핑크기를 띠는 피부	한국인에 많은 보통피부 (노란피부)	짙은 황갈색 피부
립스틱				

이 외에 연령에 맞추어 립스틱 색상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표 5> 머리색과 입술 색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머리색이 밝을수록 립스틱 색도 밝아지는 것이 어울리고 짙은 머리색에는 짙은 입술색이 어울린다. 생생하

고 뚜렷한 입술은 머리색의 톤이 밝은 경우에는 어울리지 않고 창백한 입술은 짙은 머리에 의해 죽어 보이게 된다.²⁰⁾ 입술색, 피부색에 따라 똑같은 립칼라를 이용한다고 해도 표현되는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흰 피부색이라면 붉은 립스틱이 가장 잘 어울리는 피부색으로 립칼라와 어울리는 라이너를 이용한다. 약간 어두운 피부색을 가졌다면 선명한 레드나 와인 계열의 립스틱을 적절히 이용한 립 메이크업을 연출해 준다. 노르스름한 피부는 동양인에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타입으로 노란 기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스러운 갈색 라이너를 다소 굵게 그려주고 레드 립 칼라로 자연스럽게 퍼 발라 주어 차분하고 화사해 보이도록 표현해 준다. 피부색에 따라 두 가지 색상을 이용하여 신선하고 깨끗한 느낌의 입술로 연출해 준다.²¹⁾

표 5. 립스틱 색상과 연령의 조화

연 령	40 - 50대	30대	20대
특 징	일반적인 로즈계 되도록 채도가 낮은 것이 조화됨	적색계 활기, 정열	오렌지계 청초
비 고	립스틱은 연령으로 나눌 필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이행이란 젊은이부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오렌지-레드-로즈(퍼플)의 변화로 된다고 본다.		

(4) 전체적인 색조화장의 조화

피부색과 어울리는 각각의 색조화장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흰 피부

선명한 블루 아이샤도로 눈꼬리에 포인트를 주고 로즈 립스틱으로 입술을

20) 이선주(2000)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채의 효과와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21) 라미화장품 회보 「2001겨울메이크업패턴」 통권 83호.

그러면 투명한 피부가 더 돋보인다. 그러나 이런 컬러는 다른 피부에서는 촌스럽게 느껴지므로 잘 판단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흰 피부보다는 좀더 붉은 기가 도는 피부색일 경우 눈매는 붉은 기가 있는 브라운 색도로 음영을 넣고 입술은 선명한 레드 립스틱으로 바른다. 노란기가 섞인 브라운은 거무칙칙해 보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② 노르스름한 피부

눈매는 어둡게, 입술은 밝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어두운 그린 색도우로 눈매에 포인트를 주어 입체감을 살리고 입술은 라이트 브라운 립스틱으로 눈으로 가는 시선을 잡지 않도록 한다. 노르스름하지만 붉은 기가 있는 피부일 경우에는 컬러를 브라운으로 통일하면 피부가 한결 깨끗해 보인다. 눈매는 베이지나 라이트 브라운 아이색도를 바르고 입술은 벽돌색 립스틱을 바른다.

③ 다갈색 피부

애매한 색보다 선명한 색이 잘 어울린다. 눈매에는 터키 블루색 아이 색도로 포인트를 주거나 선을 넣고 입술에는 오렌지나 코랄 계열의 립스틱을 바른다. 햇볕에 그을린 것 같은 피부에는 회색 아이색도와 오렌지가 섞인 레드 립스틱의 강렬한 대비가 어울린다. 아이 색도는 좁게 펴 바르고 검은색 아이라인을 그려 눈매를 또렷하게 보이게 한다.

(5) 헤어 칼라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한국인의 피부 유형을 밝은 피부에 밝은색 머리카락, 밝은 피부에 중간 또는 어두운색 머리카락, 중간 또는 어두운 피부에 밝은색 머리카락, 중간 또는 어두운 피부에 어두운 색 머리카락으로 나눴다. 아무리 예쁜 연예인이라도 때에 따라 덜 예뻐 보이는 이유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색상의 화장을 했기 때문인데, 연예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전지현 : 밝고 화사한 피부에 긴 검은색 머리카락을 지녔다. 파스텔톤 화장보다는 블루, 오렌지, 그린, 옐로처럼 강렬하고 생동감 넘치는 색상의 화장을 하는게 어울린다.
- ② 이나영 : 맑고 깨끗한 피부를 지녔지만 머리카락색이 전지현보다 옅은 편이다.
그는 강렬한 색감보다는 약간 탁한 핑크처럼 파스텔톤의 화장이 어울린다. 만일 생동감 있는 화장을 원한다면 머리카락색도 진하게 바꿔 주면 좋다.
- ③ 하지원 : 어두운 피부에 검고 긴 머리가 매력적인 연예인, 눈가는 자줏빛 카키색 등으로 깊게, 입술은 와인색 등으로 볼륨감 있게 표현하면 좋다.²²⁾

22) 김경인, 송경석, 최유미, 황성민(2000) 「립스틱 제품에 나타난 한국인의 선호사상 범위와 특성」 태평양 기술연구센터 자료집.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설문지는 강원 강릉에 거주하고 있는 20대-5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04년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조사한 것으로 설문지는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10명의 전문 헤어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과 보완을 통해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 헤어칼라는 웰라 헤어칼라 차트를 기준으로 본 연구자와 헤어디자이너 5명이 직접 칼라를 진단하여 설문지에 답하는 직접면접방식과 자기기입방식을 사용하였다. 총 616부가 발행되었으며, 답변이 미비한 12부를 제외하고 성실하게 설문에 응한 604부의 설문지로 통계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메이크업에 관한 질문에서는 메이크업 색상에서는 워낙 많은 종류의 색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MAKE-UP FOREVER 매장에 나와 있는 색상 중 기준이 되는 8가지 정도의 색을 선정하여 그 계열색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헤어칼라의 측정은 웰라 헤어칼라 차트를 기준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칼라를 진단하여 체크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헤어스타일에서는 전문헤어디자이너 10명을 대상으로 설문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쳤으며, 길이에 대한 기준에서는 숏은 목선정도, 미듬은 어깨선 정도, 롱은 어깨선+3cm 이상을 기준으로 분류 하였다.

헤어 웨이브유형의 기준은 웨이브의 지름이 2cm이하를 강한 웨이브, 지름이 2cm~4cm정도를 중간 웨이브, 지름이 4cm 이상을 굵은 웨이브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메이크업과 헤어 실태, 그리고 헤어와 메이크업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일반적 특성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6>와 같다.

표 6.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24세	138	22.8
	25-29세	138	22.8
	30-34세	126	20.9
	35-39세	87	14.4
	40세 이상	115	19.0
결혼 유무	미혼	323	53.5
	기혼	281	46.5
직업	학생	128	21.2
	전문기술직	45	7.5
	생산직	2	0.3
	행정사무직	91	15.1
	판매 영업직	65	10.8
	연구원	3	0.5
	교사, 교수	51	8.4
	은행원	8	1.3
	간호사	19	3.1
	서비스직	46	7.6
	예술계통	10	1.7
	주부	96	15.9
	자영업	27	4.5
	무직	13	2.2
	계		604

연령별로는 20-24세와 25-29세 여성이 각각 22.8%, 다음으로 30-34세 20.9%, 40세 이상 19.0%, 35-39세 14.4% 순으로 거의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결혼유무별로는 미혼이 53.5%로, 기혼 46.5%보다 다소 많았고, 직업별로는 학생이 2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부 15.9%, 행정사무직 15.1%, 판매 영업직 10.8%, 교사·교수 8.4%, 서비스직 7.6%, 전문기술직 7.5%, 자영업 4.5%, 간호사 3.1%, 무직 2.2%, 예술계통 1.3%, 연구원 0.5%, 생산직 0.3% 순이었다.

2. 헤어칼라 선호조사

1) 헤어칼라

여성들의 헤어칼라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이 헤어칼라가 블랙인 여성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브라운 23.0%, 다크 브라운 21.7%, 라이트 브라운 7.9%, 오렌지 브라운 5.5%, 골드 브라운 4.0%, 부분 탈색 1.3%, 레드 브라운 0.7%, 원색계열이미지 0.5% 순으로 나타났다.

- 1) 연령별로는 20세~24세가 50.0%, 40세 이상이 25.2%로 연령이 적을수록 헤어칼라로 블랙이 많았고, 20세~24세가 18.1%, 40세 이상이 27.0%로 연령이 많을수록 브라운이 많았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47.24$, $p<.05$). 결혼유무별로는 미혼 여성(42.4%)이 기혼 여성(27.4%)보다 헤어칼라로 블랙이 많았고, 기혼 여성(24.9%)은 미혼 여성(18.9%)보다 다크 브라운이 많았으며,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0.00$, $p<.05$). 직업별로는 학생(50.8%)이 다른 직업의 여성보다 헤어칼라가 블랙이 많았고, 주부(27.1%)는 브라운이, 판매영업직/서비스직 여성(10.8%)이 다른 직업의 여성보다 오렌지 브라운이 많았으며,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48.84$, $p<.05$).

표 11. 헤어칼라

명(백분율)

구분	블랙	다크 브라운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골드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	레드 브라운	원색 계열 이미지	부분 탈색	계	χ^2 (df)	p	
연령	20-24세	69 (50.0)	22 (15.9)	25 (18.1)	9 (6.5)	2 (1.4)	6 (4.3)	3 (2.2)	-	2 (1.4)	138 (22.8)	47.24* (32)	0.040
	25-29세	56 (40.6)	27 (19.6)	27 (19.6)	12 (8.7)	7 (5.1)	5 (3.6)	-	2 (1.4)	2 (1.4)	138 (22.8)		
	30-34세	36 (28.6)	32 (25.4)	33 (26.2)	11 (8.7)	5 (4.0)	7 (5.6)	1 (0.8)	1 (0.8)	-	126 (20.9)		
	35-39세	24 (27.6)	22 (25.3)	23 (26.4)	5 (5.7)	6 (6.9)	5 (5.7)	-	-	2 (2.3)	87 (14.4)		
	40세 이상	29 (25.2)	28 (24.3)	31 (27.0)	11 (9.6)	4 (3.5)	10 (8.7)	-	-	2 (1.7)	115 (19.0)		
결혼 유무	미혼	137 (42.4)	61 (18.9)	70 (21.7)	25 (7.7)	9 (2.8)	12 (3.7)	3 (0.9)	2 (0.6)	4 (1.2)	323 (53.5)	20.00* (8)	0.010
	기혼	77 (27.4)	70 (24.9)	69 (24.6)	23 (8.2)	15 (5.3)	21 (7.5)	1 (0.4)	1 (0.4)	4 (1.4)	281 (46.5)		
직업	학생	65 (50.8)	21 (16.4)	19 (14.8)	9 (7.0)	3 (2.3)	5 (3.9)	1 (0.8)	2 (1.6)	3 (2.3)	128 (21.2)	48.84* (32)	0.029
	행정사무직	51 (29.7)	42 (24.4)	45 (26.2)	16 (9.3)	8 (4.7)	5 (2.9)	2 (1.2)	1 (0.6)	2 (1.2)	172 (28.5)		
	판매영업직 /서비스직	29 (26.1)	28 (25.2)	30 (27.0)	6 (5.4)	5 (4.5)	12 (10.8)	-	-	1 (0.9)	111 (18.4)		
	주부	33 (34.4)	22 (22.9)	26 (27.1)	5 (5.2)	2 (2.1)	6 (6.3)	-	-	2 (2.1)	96 (15.9)		
	기타	36 (37.1)	18 (18.6)	19 (19.6)	12 (12.4)	6 (6.2)	5 (5.2)	1 (1.0)	-	-	97 (16.1)		
계	214 (35.4)	131 (21.7)	139 (23.0)	48 (7.9)	24 (4.0)	33 (5.5)	4 (0.7)	3 (0.5)	8 (1.3)	604 (100.0)			

* $p < .05$

이상과 같이 여성들의 헤어칼라로는 블랙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적을수록, 미혼과 학생일수록 헤어칼라가 블랙이 많았다. 고영주(2002)도 “헤어칼라가 이미지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인구 통계적 변수에 따른 헤어칼라 선호도와와의 관계”에서 젊은층인 20대 여성들은 중간톤 보다는 흑색처럼 아주 어둡거나 밝은 느낌의 금빛, 금 구릿빛 색상을 선호한다고 했다. 이렇게 블랙칼라 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것은 조사기간이 겨울과 초봄의

추운 계절인 것과 최근의 트렌드가 밝거나 튀는 색을 선호하지 않는 추세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2) 머리길이

여성들의 머리길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8>과 같이 머리길이가 중간인 여성이 50.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롱 27.0%, 숏 2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머리길이 형태

명(백분율)

구 분		총	미듬	숏	계	χ^2 (df)	p
연령	20-24세	61 (44.2)	65 (47.1)	12 (8.7)	138 (22.8)	75.06*** (8)	0.000
	25-29세	42 (30.4)	80 (58.0)	16 (11.6)	138 (22.8)		
	30-34세	34 (27.0)	60 (47.6)	32 (25.4)	126 (20.9)		
	35-39세	15 (17.2)	43 (49.4)	29 (33.3)	87 (14.4)		
	40세 이상	11 (9.6)	57 (49.6)	47 (40.9)	115 (19.0)		
결혼 유무	미혼	114 (35.3)	163 (50.5)	46 (14.2)	323 (53.5)	38.87*** (2)	0.000
	기혼	49 (17.4)	142 (50.5)	90 (32.0)	281 (46.5)		
직업	학생	52 (40.6)	55 (43.0)	21 (16.4)	128 (21.2)	27.39** (8)	0.001
	행정사무직	40 (23.3)	91 (52.9)	41 (23.8)	172 (28.5)		
	판매영업직/서비스직	37 (33.3)	52 (46.8)	22 (19.8)	111 (18.4)		
	주부	12 (12.5)	56 (58.3)	28 (29.2)	96 (15.9)		
	기타	22 (22.7)	51 (52.6)	24 (24.7)	97 (16.1)		
계		163 (27.0)	305 (50.5)	136 (22.5)	604 (100.0)		

* p<.05, ** p<.01, *** p<.001

연령별로는 20세~24세(44.2%), 40세 이상(9.6%)로 연령이 적을수록 머리 길이가 길었고, 20세~24세(8.7%), 40세 이상(40.9%)연령이 높을수록 머리 길이가 짧았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75.06$, $p<.001$). 결혼 유무별로는 미혼 여성(35.3%)이 기혼 여성(17.4%)보다 머리 길이가 길었고, 기혼 여성(32.0%)은 미혼 여성(14.2%)보다 머리 길이가 짧았으며, 결혼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38.87$, $p<.001$). 직업별로는 학생 (40.6%)이 다른 직업의 여성보다 머리 길이가 길었고, 주부가 다른 직업의 여성보다 머리 길이가 중간이거나(58.3%), 짧았으며(29.2%),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7.39$, $p<.01$).

이상과 같이 여성들의 머리 길이는 미듬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적을수

록, 미혼, 학생일수록 머리길이가 롱 스타일을 유지하였다.

3) 헤어스타일 유형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유형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이 헤어스타일의 유형이 스트레이트인 여성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굵은 웨이브 24.8%, 중간 웨이브 18.4%, 롤 스트레이트 14.9%, 강한 웨이브와 기타가 각각 1.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4세 여성(65.9%)이 다른 연령의 여성보다 헤어스타일 유형이 스트레이트가 많았고, 35-39세 여성(41.4%)이 다른 연령의 여성보다 헤어스타일 유형이 굵은 웨이브가 많았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13.62$, $p<.001$). 결혼유무별로는 미혼 여성(51.1%)이 기혼 여성(23.5%)보다 헤어스타일 유형으로 스트레이트가 많았고, 기혼 여성(32.7%)은 미혼 여성(18.0%)보다 굵은 웨이브가 많았으며,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60.01$, $p<.001$).

표 9. 헤어스타일 유형

명(백분율)

구분	스트레이트	를 스트레이트	굵은 웨이브	중간 웨이브	강한 웨이브	기타	계	χ^2 (df)	p	
연령	20~24세	91 (65.9)	19 (13.8)	12 (8.7)	13 (9.4)	1 (0.7)	2 (1.4)	138 (22.8)	113.62*** (20)	0.000
	25~29세	65 (47.1)	22 (15.9)	27 (19.6)	22 (15.9)	2 (1.4)	-	138 (22.8)		
	30~34세	43 (34.1)	15 (11.9)	40 (31.7)	22 (17.5)	3 (2.4)	3 (2.4)	126 (20.9)		
	35!39세	13 (14.9)	15 (17.2)	36 (41.4)	21 (24.1)	1 (1.1)	1 (1.1)	87 (14.4)		
	40세 이상	19 (16.5)	19 (16.5)	35 (30.4)	33 (28.7)	4 (3.5)	5 (4.3)	115 (19.0)		
결혼 유무	미혼	165 (51.1)	51 (15.8)	58 (18.0)	43 (13.3)	4 (1.2)	2 (0.6)	323 (53.5)	60.01*** (5)	0.000
	기혼	66 (23.5)	39 (13.9)	92 (32.7)	68 (24.2)	7 (2.5)	9 (3.2)	281 (46.5)		
직업	학생	79 (61.7)	21 (16.4)	10 (7.8)	14 (10.9)	1 (0.8)	3 (2.3)	128 (21.2)	76.76*** (20)	0.000
	행정사무직	61 (35.5)	26 (15.1)	44 (25.6)	39 (22.7)	2 (1.2)	-	172 (28.5)		
	판매영업직/ 서비스직	38 (34.2)	12 (10.8)	29 (26.1)	27 (24.3)	3 (2.7)	2 (1.8)	111 (18.4)		
	주부	23 (24.0)	15 (15.6)	31 (32.3)	21 (21.9)	1 (1.0)	5 (5.2)	96 (15.9)		
	기타	30 (30.9)	16 (16.5)	36 (37.1)	10 (10.3)	4 (4.1)	1 (1.0)	97 (16.1)		
계	231 (38.2)	90 (14.9)	150 (24.8)	111 (18.4)	11 (1.8)	11 (1.8)	604 (100.0)			

*** p<.001

직업별로는 학생(61.7%)이 다른 직업의 여성보다 헤어스타일 유형이 스트레이트가 많았고, 주부(32.3%)는 다른 직업의 여성보다 헤어스타일이 굵은 웨이브 유형이 많았으며,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76.76$, $p<.001$).

이상과 같이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은 스트레이트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20-24세 여성과, 미혼, 학생인 여성일수록 헤어스타일이 스트레이트 유형이 많았다. 이는 고영주(2002)의 “헤어칼라가 이미지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인구 통계적 변수에 따른 헤어칼라 선호도와와의 관계의 연구” 에

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청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에서도 나오듯, 웨이브 유형 보다는 스트레이트 유형이 청순해 보이는 느낌이 더 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메이크업 선호조사

1) 메이크업 정도

여성들이 메이크업을 하는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이 네추럴하게 메이크업을 하는 여성이 5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초화장만 17.9%, 피부화장만 13.9%, 포인트만 준다. 9.3%, 진하게 3.3%,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4세 여성이 다른 연령의 여성보다 네추럴하게 메이크업을 많이 하였고, 40세 이상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화장만을 많이 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유무별로는 미혼 여성(55.7%)이 기혼 여성(52.7%)보다 네추럴한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 여성(5.3%)은 미혼 여성(1.5%)보다 진하게 많이 하였으며,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3.86$, $p<.05$). 직업별로는 학생(26.6%)이 다른 직업의 여성보다 기초화장만을 많이 하였고, 행정사무직 여성은 네추럴하게, 주부(61.0%)는 다른 직업의 여성보다 피부화장만(18.8%)을 많이 하였으며,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34.28$, $p<.05$).

표 10. 메이크업 정도

구 분		기초화장 만	피부 화장만	네추럴 하계	진하계	포인트만 준다	기타	계	χ^2 (df)	p
연령	20-24세	28 (20.3)	21 (15.2)	81 (58.7)	1 (0.7)	6 (4.3)	1 (0.7)	138 (22.8)	30.71 (20)	0.059
	25-29세	29 (21.0)	22 (15.9)	71 (51.4)	2 (1.4)	13 (9.4)	1 (0.7)	138 (22.8)		
	30-34세	18 (14.3)	14 (11.1)	72 (57.1)	5 (4.0)	15 (11.9)	2 (1.6)	126 (20.9)		
	35-39세	18 (20.7)	6 (6.9)	49 (56.3)	3 (3.4)	10 (11.5)	1 (1.1)	87 (14.4)		
	40세 이상	15 (13.0)	21 (18.3)	55 (47.8)	9 (7.8)	12 (10.4)	3 (2.6)	115 (19.0)		
결혼 유무	미혼	67 (20.7)	43 (13.3)	180 (55.7)	5 (1.5)	26 (8.0)	2 (0.6)	323 (53.5)	13.86* (5)	0.017
	기혼	41 (14.6)	41 (14.6)	148 (52.7)	15 (5.3)	30 (10.7)	6 (2.1)	281 (46.5)		
직업	학생	34 (26.6)	19 (14.8)	64 (50.0)	2 (1.6)	7 (5.5)	2 (1.6)	128 (21.2)	34.28* (20)	0.024
	행정사무직	25 (14.5)	21 (12.2)	105 (61.0)	6 (3.5)	15 (8.7)	-	172 (28.5)		
	판매영업직/서 비스직	15 (13.5)	16 (14.4)	62 (55.9)	3 (2.7)	13 (11.7)	2 (1.8)	111 (18.4)		
	주부	21 (21.9)	18 (18.8)	41 (42.7)	3 (3.1)	9 (9.4)	4 (4.2)	96 (15.9)		
	기타	13 (13.4)	10 (10.3)	56 (57.7)	6 (6.2)	12 (12.4)	-	97 (16.1)		
계		108 (17.9)	84 (13.9)	328 (54.3)	20 (3.3)	56 (9.3)	8 (1.3)	604 (100.0)		

* p<.05, *** p<.001

이상과 같이 네추럴하게 메이크업을 하는 여성(54.3%)이 가장 많았으며, 미혼 여성(55.7%)과 직업이 행정 사무직인 여성(61.0%)일수록 네추럴하게 메이크업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희(2001)는 “재킷색이 얼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란 선행논문에서 20대 여성의 얼굴에서 색채화장을 하지 않았거나 네추럴과 같이 자연스런 화장 또는 클래식과 같이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얼굴 화장을 다른 색채화장 트렌드보다 더 선호한다는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의 연구와 관련하여 고찰하며 메이크업 정도의 조사에서는 아직 질문을 위한 표준화된 척도나 지표가 없는데서 발생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예로 김복희(1998)의 「뉴-피부 미용학」에서 메이크업의 정도를 ‘약간 짙다’, ‘보통’, ‘얇다’, ‘아주 얇다’로 분류하고 모든 대상자가 당연히 화장을 하는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조사하였고, 신명자(2001)의 “여대생의 미용행태 및 그에 따른 건강위해 실태조사”라는 선행 논문에서는 ‘기초화장’, ‘부분색조화장’, ‘전체색조화장’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의 문항작성에 좀 더 세분화와 주의가 필요하며 지표가 될 만한 연구와 표준화된 척도의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는 미혼여성이 기혼여성에 비해 주름과 잡티가 덜하기 때문이고, 행정사무직의 특성상 미혼이 많고 최근 유행성향이 내추럴한 메이크업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4) 즐겨하는 새도우 색상 유형

여성들이 즐겨하는 새도우 색상 유형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이 새도우 색상으로 핑크계열을 즐겨하는 여성이 2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브라운계열 26.7%, 퍼플계열 11.6%, 기타 9.1%, 블루계열 8.4%, 오렌지계열 5.8%, 그린계열 5.6%, 그레이 계열 2.6%, 블랙계열 1.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이 40.0%로 새도우 색상으로 브라운계열을 많이 즐겨하였고, 20세~24세가 43.5% 핑크계열을 즐겨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84.75$, $p<.001$).

결혼유무별로는 미혼 여성(34.7%)이 기혼 여성(22.1%)보다 새도우 색상으로 핑크계열을 많이 즐겨하였고, 기혼여성(35.2%)은 미혼여성(19.2%)보다 브라운계열을 즐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33.80$, $p<.001$).

직업별로는 학생(41.4%)이 다른 직업의 여성보다 새도우 색상으로 핑크

계열을 많이 즐겨하였고, 주부(42.7%)가 다른 직업의 여성보다 브라운계열을 즐겨하였으며,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76.86$, $p<.001$).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새도우 색상으로 핑크계열(28.8%)을 가장 즐겨하였으며, 연령이 적을수록, 미혼, 학생일수록 새도우 색상으로 핑크계열을 즐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학생이 많고 귀여운 이미지를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연희(2001)는 “재킷색이 얼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에서도 연령이 화장 색에 대한 이미지 지각을 다르게 지각하여 연령은 색채지각능력을 구분하는 영향력이 있다고 하여, 연령에 따라 다른 선호칼라가 나온 본 연구자의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표 11. 즐겨하는 새도우 색상 계열

명 (백분율)

구분		브라운 계열	핑크 계열	퍼플 계열	그레이 계열	블루 계열	그린 계열	오렌지 계열	블랙 계열	기타	계	χ^2 (df)	p
연령	20-24세	16 (11.6)	60 (43.5)	13 (9.4)	5 (3.6)	10 (7.2)	3 (2.2)	11 (8.0)	5 (3.6)	15 (10.9)	138 (22.8)	84.75*** (32)	0.000
	25-29세	30 (21.7)	44 (31.9)	16 (11.6)	5 (3.6)	10 (7.2)	7 (5.1)	12 (8.7)	-	14 (10.1)	138 (22.8)		
	30-34세	36 (28.6)	36 (28.6)	17 (13.5)	-	16 (12.7)	8 (6.3)	4 (3.2)	1 (0.8)	8 (6.3)	126 (20.9)		
	35-39세	33 (37.9)	17 (19.5)	12 (13.8)	1 (1.1)	9 (10.3)	3 (3.4)	3 (3.4)	1 (1.1)	8 (9.2)	87 (14.4)		
	40세 이상	46 (40.0)	17 (14.8)	12 (10.4)	5 (4.3)	6 (5.2)	13 (11.3)	5 (4.3)	1 (0.9)	10 (8.7)	115 (19.0)		
결혼 유무	미혼	62 (19.2)	112 (34.7)	35 (10.8)	10 (3.1)	27 (8.4)	13 (4.0)	25 (7.7)	6 (1.9)	33 (10.2)	323 (53.5)	33.80*** (8)	0.000
	기혼	99 (35.2)	62 (22.1)	35 (12.5)	6 (2.1)	24 (8.5)	21 (7.5)	10 (3.6)	2 (0.7)	22 (7.8)	281 (46.5)		
직업	학생	15 (11.7)	53 (41.4)	12 (9.4)	9 (7.0)	9 (7.0)	4 (3.1)	7 (5.5)	2 (1.6)	17 (13.3)	128 (21.2)	76.86*** (32)	0.000
	행정사무직	55 (32.0)	45 (26.2)	17 (9.9)	2 (1.2)	13 (7.6)	8 (4.7)	12 (7.0)	4 (2.3)	16 (9.3)	172 (28.5)		
	판매영업직/ 서비스직	20 (18.0)	38 (34.2)	19 (17.1)	1 (0.9)	13 (11.7)	7 (6.3)	7 (6.3)	1 (0.9)	5 (4.5)	111 (18.4)		
	주부	41 (42.7)	18 (18.8)	12 (12.5)	2 (2.1)	8 (8.3)	5 (5.2)	1 (1.0)	-	9 (9.4)	96 (15.9)		
	기타	30 (30.9)	20 (20.6)	10 (10.3)	2 (2.1)	8 (8.2)	10 (10.3)	8 (8.2)	1 (1.0)	8 (8.2)	97 (16.1)		
계		161 (26.7)	174 (28.8)	70 (11.6)	16 (2.6)	51 (8.4)	34 (5.6)	35 (5.8)	8 (1.3)	55 (9.1)	604 (100.0)		

* p<.05, *** p<.001

5) 즐겨하는 립스틱 색상 유형

여성들이 즐겨하는 립스틱 색상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2>과 같이 즐겨하는 립스틱 색상으로 핑크계열을 즐겨하는 여성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투명 20.2%, 레드계열 14.7%, 오렌지계열 12.4%, 브라운계열 11.4%, 베이지계열 9.6%, 진한 브라운계열 2.3%, 기타 2.2% 순으

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립스틱 색상으로 투명을 많이 즐겨하였고, 25-29세 여성(29.7%)이 다른 연령의 여성보다 핑크계열을 즐겨하였으며, 40대 이상(23.5%)은 다른 연령 대에 비해 브라운계열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선호 하였는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32.45$, $p<.001$). 결혼유무별로는 미혼 여성(31.6%)이 기혼 여성(7.1%)보다 립스틱 색상으로 투명을 즐겨하였고, 기혼 여성(20.6%)은 미혼 여성(9.6%)보다 레드계열을 즐겨하였으며,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81.92$, $p<.001$).

직업별로는 학생(36.7%)이 다른 직업의 여성보다 립스틱 칼라로 투명을 많이 즐겨하였고, 판매영업직/서비스직 여성(35.1%)은 다른 직업의 여성보다 핑크를 많이 즐겨하였으며,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75.60$, $p<.001$).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립스틱 칼라로 핑크를 많이 즐겨하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 학생일수록 립스틱 칼라로 투명을 많이 즐겨하였다. 이것은 청순하고 어려보이는 립글로즈의 유행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학생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메이크업 유행에 선두적인 입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립스틱 색상은 베이지와 브라운, 핑크와 레드 계열이라는 황상민, 김경인, 송경석, 최유미(2000)의 “립스틱제품에 나타난 한국인의 선호사상 범위와 특성”이라는 연구와 이연희(2001)의 “색채화장이 얼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중 20대 여성은 주황, 빨강, 핑 분홍색 입술을 선호한다는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이명희, 강승희(1998)의 “장신구와 재킷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연희 (2001)의 연구에서도 입술 색에 대한 지각은 연령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평가되었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으나, 40~50대는 빨강색 입술을 선호한다는 이명희, 강희승(1998)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표12. 즐겨하는 립스틱 색상 계열

명 (백분율)

구분	진한 브라운 계열	브라운 계열	베이지 계열	핑크 계열	오렌지 계열	레드 계열	투명 계열	기타	계	X ² (df)	p	
연령	20-24세	-	4 (2.9)	11 (8.0)	36 (26.1)	16 (11.6)	13 (9.4)	56 (40.6)	2 (1.4)	138 (22.8)	132.45*** (28)	0.000
	25-29세	1 (0.7)	15 (10.9)	19 (13.8)	41 (29.7)	14 (10.1)	8 (5.8)	35 (25.4)	5 (3.6)	138 (22.8)		
	30-34세	3 (2.4)	7 (5.6)	13 (10.3)	31 (24.6)	24 (19.0)	26 (20.6)	20 (15.9)	2 (1.6)	126 (20.9)		
	35-39세	2 (2.3)	16 (18.4)	5 (5.7)	25 (28.7)	12 (13.8)	20 (23.0)	5 (5.7)	2 (2.3)	87 (14.4)		
	40세 이상	8 (7.0)	27 (23.5)	10 (8.7)	31 (27.0)	9 (7.8)	22 (19.1)	6 (5.2)	2 (1.7)	115 (19.0)		
결혼 유무	미혼	1 (0.3)	23 (7.1)	35 (10.8)	87 (26.9)	37 (11.5)	31 (9.6)	102 (31.6)	7 (2.2)	323 (53.5)	81.92*** (7)	0.000
	기혼	13 (4.6)	46 (16.4)	23 (8.2)	77 (27.4)	38 (13.5)	58 (20.6)	20 (7.1)	6 (2.1)	281 (46.5)		
직업	학생	-	6 (4.7)	11 (8.6)	38 (29.7)	10 (7.8)	11 (8.6)	47 (36.7)	5 (3.9)	128 (21.2)	75.60*** (28)	0.000
	행정사무 직	4 (2.3)	20 (11.6)	17 (9.9)	40 (23.3)	23 (13.4)	31 (18.0)	35 (20.3)	2 (1.2)	172 (28.5)		
	판매영업 직/서비스 직	1 (0.9)	13 (11.7)	15 (13.5)	39 (35.1)	20 (18.0)	8 (7.2)	14 (12.6)	1 (0.9)	111 (18.4)		
	주부	5 (5.2)	18 (18.8)	6 (6.3)	23 (24.0)	10 (10.4)	20 (20.8)	10 (10.4)	4 (4.2)	96 (15.9)		
	기타	4 (4.1)	12 (12.4)	9 (9.3)	24 (24.7)	12 (12.4)	19 (19.6)	16 (16.5)	1 (1.0)	97 (16.1)		
계	14 (2.3)	69 (11.4)	58 (9.6)	164 (27.2)	75 (12.4)	89 (14.7)	122 (20.2)	13 (2.2)	604 (100.0)			

** p<.01, *** p<.001

6) 메이크업시 포인트를 주는 부분

여성들이 메이크업시 포인트를 주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이 메이크업시 포인트를 눈에 주는 여성이 4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입술 21.2%, 없다 20.0%, 피부 10.8%, 전체적으로 진하게 2.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메이크업시 포인트를 눈에 많이 주었고, 40세 이상 여성은 40세 미만 여성보다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 없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 유무별로는 미혼 여성(50.8%)이 기혼 여성(40.6%)보다 메이크업시 포인트를 눈에 많이 주었고, 기혼 여성(26.3%)은 미혼 여성(16.7%)보다 입술에 많이 주었으며, 결혼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2.24$, $p<.05$). 직업별로는 학생이 다른 직업의 여성보다 메이크업시 포인트를 피부에 많이 주었고, 주부는 다른 직업의 여성보다 입술에 많이 주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메이크업시 포인트를 눈에 가장 많이 주었으며,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메이크업시 포인트를 눈에 많이 주었다. 이는 최근 들어 피부에 많이 관심을 보이는 추세이므로 피부화장 후엔 입술보다는 눈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13. 메이크업시 포인트를 주는 부분

명 (백분율)

구 분		눈	입술	피부	없다	전체적으로 진하게	계	χ^2 (df)	p
연령	20-24세	76 (55.1)	17 (12.3)	14 (10.1)	30 (21.7)	1 (0.7)	138 (22.8)	23.18 (16)	0.109
	25-29세	66 (47.8)	28 (20.3)	16 (11.6)	27 (19.6)	1 (0.7)	138 (22.8)		
	30-34세	57 (45.2)	31 (24.6)	13 (10.3)	22 (17.5)	3 (2.4)	126 (20.9)		
	35-39세	37 (42.5)	23 (26.4)	12 (13.8)	13 (14.9)	2 (2.3)	87 (14.4)		
	40세 이상	42 (36.5)	29 (25.2)	10 (8.7)	29 (25.2)	5 (4.3)	115 (19.0)		
결혼 유무	미혼	164 (50.8)	54 (16.7)	37 (11.5)	64 (19.8)	4 (1.2)	323 (53.5)	12.24 [*] (4)	0.016
	기혼	114 (40.6)	74 (26.3)	28 (10.0)	57 (20.3)	8 (2.8)	281 (46.5)		
직업	학생	58 (45.3)	20 (15.6)	18 (14.1)	31 (24.2)	1 (0.8)	128 (21.2)	22.10 (16)	0.140
	행정사무직	74 (43.0)	42 (24.4)	18 (10.5)	34 (19.8)	4 (2.3)	172 (28.5)		
	판매영업직/서비스직	62 (55.9)	19 (17.1)	13 (11.7)	15 (13.5)	2 (1.8)	111 (18.4)		
	주부	33 (34.4)	25 (26.0)	11 (11.5)	24 (25.0)	3 (3.1)	96 (15.9)		
	기타	51 (52.6)	22 (22.7)	5 (5.2)	17 (17.5)	2 (2.1)	97 (16.1)		
계		278 (46.0)	128 (21.2)	65 (10.8)	121 (20.0)	12 (2.0)	604 (100.0)		

* $p < .05$

4. 헤어와 메이크업 성향과의 관계

1) 헤어칼라에 따른 메이크업 정도

여성들의 헤어칼라에 따른 메이크업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4>과 같다.

표 14. 헤어칼라에 따른 메이크업 정도

구 분	명(백분율)							χ^2 (df)	p
	기초화 장만	피부 화장만	네추럴 하게	진하게	포인트 만 준다.	기타	계		
블랙	49 (22.9)	25 (11.7)	106 (49.5)	6 (2.8)	23 (10.7)	5 (2.3)	214 (35.4)	47.84 (35)	0.073
다크 브라운	18 (13.7)	20 (15.3)	78 (59.5)	4 (3.1)	10 (7.6)	1 (0.8)	131 (21.7)		
브라운	19 (13.7)	20 (14.4)	83 (59.7)	4 (2.9)	13 (9.4)	-	139 (23.0)		
라이트브라운	8 (16.7)	6 (12.5)	29 (60.4)	3 (6.3)	2 (4.2)	-	48 (7.9)		
골드브라운	4 (16.7)	4 (16.7)	14 (58.3)	1 (4.2)	1 (4.2)	-	24 (4.0)		
오렌지브라운	6 (18.2)	6 (18.2)	14 (42.4)	2 (6.1)	5 (15.2)	-	33 (5.5)		
기타색	1 (14.3)	2 (28.6)	3 (42.9)	-	-	1 (14.3)	7 (1.2)		
탈색	3 (37.5)	1 (12.5)	1 (12.5)	-	2 (25.0)	1 (1.5)	8 (1.3)		
계	108 (17.9)	84 (13.9)	328 (54.3)	20 (3.3)	56 (9.3)	8 (1.3)	604 (100.0)		

헤어칼라가 블랙인 여성이 다른 헤어칼라의 여성보다 기초화장만 하였
고, 다크 브라운과 브라운, 라이트 여성은 다른 헤어칼라의 여성보다 네
추럴하게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오렌지브라운인 여성은 다른 헤어칼라의
여성보다 포인트만 주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따라서 여성들은 헤어칼라에 따라 메이크업 정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헤어칼라에 따라 즐겨하는 새도우 색상 계열

여성들의 헤어칼라에 따라 즐겨하는 새도우 색상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15>과 같다.

표 15. 헤어칼라에 따라 즐겨하는 새도우 색상계열

구 분	명(백분율)										χ^2 (df)	p
	브라운 계열	핑크 계열	퍼플 계열	그레이 계열	블루 계열	그린 계열	오렌지 계열	블랙 계열	기타	계		
블랙	46 (21.5)	58 (27.1)	18 (8.4)	7 (3.3)	24 (11.2)	13 (6.1)	12 (5.6)	6 (2.8)	30 (14.0)	214 (35.4)	63.40 (56)	0.232
다크 브라운	43 (32.8)	30 (22.9)	16 (12.2)	2 (1.5)	10 (7.6)	9 (6.9)	10 (7.6)	1 (0.8)	10 (7.6)	131 (21.7)		
브라운	42 (30.2)	43 (30.9)	21 (15.1)	2 (1.4)	11 (7.9)	7 (5.0)	3 (2.2)	1 (0.7)	9 (6.5)	139 (23.0)		
라이트브라운	14 (29.2)	12 (25.0)	6 (12.5)	4 (8.3)	4 (8.3)	3 (6.3)	3 (6.3)	-	2 (4.2)	48 (7.9)		
골드브라운	5 (20.8)	10 (41.7)	3 (12.5)	-	1 (4.2)	1 (4.2)	3 (12.5)	-	1 (4.2)	24 (4.0)		
오렌지브라운	7 (21.2)	14 (42.4)	6 (18.2)	1 (3.0)	-	1 (3.0)	3 (9.1)	-	1 (3.0)	33 (5.5)		
기타색	1 (14.3)	5 (71.4)	-	-	-	-	-	-	1 (14.3)	7 (1.2)		
탈색	3 (37.5)	2 (25.0)	-	-	1 (12.5)	-	1 (12.5)	-	1 (12.5)	8 (1.3)		
계	161 (26.7)	174 (28.8)	70 (11.6)	16 (2.6)	51 (8.4)	34 (5.6)	35 (5.8)	8 (1.3)	55 (9.1)	604 (100.0)		

헤어칼라가 다크 브라운과 브라운인 여성과 탈색한 여성이 다른 헤어칼라의 여성보다 새도우 색상으로 브라운계열을 즐겨하였고, 기타색인 여성은 핑크계열을, 헤어칼라가 블랙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블루계열을

즐거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들은 헤어칼라에 따라 즐겨하는 새도우 색상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헤어칼라에 따라 즐겨하는 립스틱 색상계열

여성들의 헤어칼라에 따라 즐겨하는 립스틱 칼라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헤어칼라에 따라 즐겨하는 립스틱 색상계열

구 분	명(백분율)									χ^2 (df)	p
	진한 브라운 계열	브라운 계열	베이지 계열	핑크 계열	오렌지 계열	레드 계열	투명 계열	기타	계		
블랙	3 (1.4)	17 (7.9)	21 (9.8)	53 (24.8)	23 (10.7)	35 (16.4)	52 (24.3)	10 (4.7)	214 (35.4)	77.77** (49)	0.006
다크 브라운	4 (3.1)	23 (17.6)	16 (12.2)	30 (22.9)	10 (7.6)	21 (16.0)	26 (19.8)	1 (0.8)	131 (21.7)		
브라운	4 (2.9)	15 (10.8)	15 (10.8)	37 (26.6)	25 (18.0)	17 (12.2)	26 (18.7)	-	139 (23.0)		
라이트 브라운	1 (2.1)	4 (8.3)	3 (6.3)	19 (39.6)	6 (12.5)	4 (8.3)	11 (22.9)	-	48 (7.9)		
골드 브라운	-	-	-	6 (25.0)	4 (16.7)	9 (37.5)	4 (16.7)	1 (4.2)	24 (4.0)		
오렌지 브라운	2 (6.1)	7 (21.2)	2 (6.1)	13 (39.4)	5 (15.2)	1 (3.0)	3 (9.1)	-	33 (5.5)		
기타색	-	1 (14.3)	1 (14.3)	3 (42.9)	1 (14.3)	-	-	1 (14.3)	7 (1.2)		
탈색	-	2 (25.0)	-	3 (37.5)	1 (12.5)	2 (25.0)	-	-	8 (1.3)		
계	14 (2.3)	69 (11.4)	58 (9.6)	164 (27.2)	75 (12.4)	89 (14.7)	122 (20.2)	13 (2.2)	604 (100.0)		

** p<.01

헤어칼라가 블랙인 여성(24.3%)이 다른 헤어칼라의 여성보다 립스틱 색상으로 투명을 즐겨하였고, 헤어칼라가 다크 브라운인 여성(17.6%)이 다른 헤어칼라의 여성보다 브라운계열을, 라이트 브라운인 여성(39.6%)은 헤어칼라의 여성보다 핑크계열을 즐겨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39.16$, $p<.01$). 따라서, 헤어칼라가 블랙을 유지한 여성은 다른 헤어칼라를 가지고 있는 여성보다 립스틱 색상의 선호에서 투명을 즐겨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라이트 브라운 칼라의 여성은 핑크계열의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헤어칼라가 블랙이면 피부를 더 돋보이게 하고 또한 립스틱색상을 투명으로 하면 피부가 더 깨끗해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헤어칼라에 따라 메이크업시 포인트 주는 부분

여성들의 헤어칼라에 따른 메이크업시 포인트를 주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17 >과 같다.

표 17. 헤어칼라에 따라 메이크업시 포인트 주는 부분

명(백분율)

구 분	눈	입술	피부	없다	전체적으로 진하게	계	χ^2 (df)	p
블랙	104 (48.6)	42 (19.6)	18 (8.4)	47 (22.0)	3 (1.4)	214 (35.4)	33.09 (28)	0.232
다크 브라운	57 (43.5)	25 (19.1)	20 (15.3)	25 (19.1)	4 (3.1)	131 (21.7)		
브라운	65 (46.8)	27 (19.4)	14 (10.1)	31 (22.3)	2 (1.4)	139 (23.0)		
라이트브라운	22 (45.8)	10 (20.8)	6 (12.5)	9 (18.8)	1 (2.1)	48 (7.9)		
골드브라운	8 (33.3)	11 (45.8)	2 (8.3)	2 (8.3)	1 (4.2)	24 (4.0)		
오렌지브라운	19 (57.6)	9 (27.3)	2 (6.1)	3 (9.1)	-	33 (5.5)		
기타색	2 (28.6)	1 (14.3)	1 (14.3)	2 (28.6)	1 (14.3)	7 (1.2)		
탈색	1 (12.5)	3 (37.5)	2 (25.0)	2 (25.0)	-	8 (1.3)		
계	278 (46.0)	128 (21.2)	65 (10.8)	121 (20.0)	12 (2.0)	604 (100.0)		

헤어칼라가 오렌지브라운 여성이 다른 헤어칼라의 여성보다 메이크업시 포인트를 눈에 많이 주었고, 헤어칼라가 골드브라운인 여성은 다른 헤어칼라의 여성보다 입술에 포인트를 많이 주었으나 블랙과 브라운인 여성이 다른 헤어칼라의 여성보다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 없었고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들은 헤어칼라에 따라 메이크업시 포인트 주는 부분이 차이가 거의 없이 눈에 포인트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헤어칼라와 헤어스타일 성향과의 관계

1) 헤어칼라에 따른 머리길이

여성들의 헤어칼라에 따라 머리길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18>와 같다.

헤어칼라가 블랙인 여성이 다른 헤어칼라의 여성보다 머리길이가 롱(32.7%)이 많았고, 브라운인 여성은 미듬(54.7%)이, 라이트브라운인 여성은 다른 헤어칼라의 여성보다 숏(33.3%)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들은 헤어칼라에 따라 머리길이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머리 길이는 헤어칼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표 18. 헤어칼라에 따른 머리길이

명(백분율)

구 분	롱	미등	숏	계	χ^2 (df)	p
블랙	70 (32.7)	100 (46.7)	44 (20.6)	214 (35.4)	19.68 (14)	0.141
다크 브라운	26 (19.8)	68 (51.9)	37 (28.2)	131 (21.7)		
브라운	38 (27.3)	76 (54.7)	25 (18.0)	139 (23.0)		
라이트브라운	9 (18.8)	23 (47.9)	16 (33.3)	48 (7.9)		
골드브라운	7 (29.2)	12 (50.0)	5 (20.8)	24 (4.0)		
오렌지브라운	8 (24.2)	17 (51.5)	8 (24.2)	33 (5.5)		
기타색	4 (57.1)	3 (42.9)	-	7 (1.2)		
탈색	1 (12.5)	6 (75.0)	1 (12.5)	8 (1.3)		
계	163 (27.0)	305 (50.5)	136 (22.5)	604 (100.0)		

2) 헤어칼라에 따른 헤어스타일

여성들의 헤어칼라에 따라 헤어스타일을 살펴본 결과는 <표 19>과 같다. 헤어칼라가 블랙인 여성이 다른 헤어칼라의 여성보다 헤어스타일이 스트레이트(49.1%)가 많았고, 다크 브라운인 여성은 롤스트레이트(19.1%)가, 브라운인 여성은 다른 헤어칼라의 여성보다 중간웨이브(28.1%)가, 골드브라운인 여성은 다른 헤어칼라의 여성보다 굵은 웨이브(37.5%)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63.40$, $p<.01$). 따라서 헤어칼라가 블랙인 여성이 다른 헤어칼라의 여성보다 헤어스타일이 스트레이트가 많았으며, 골드 브라운인 여성은 다른 헤어칼라의 여성보다 굵은 웨이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헤어칼라에 따라 헤어스타일이 변화되고, 헤어칼라가 어두울수록 스트레이트를 선호하고, 헤어칼라가 밝을수록 스트레이트보다는 웨이브를 선호하는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조사된 계절이 겨울과 초봄에 이루어진 관계로 밝은 칼라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 웨이브의 성향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은 점이 많이 아쉽다.

표 19. 헤어칼라에 따른 헤어스타일

명(백분율)

구분	스트레이트	롤 스트레이트	굵은 웨이브	중간 웨이브	강한 웨이브	기타	계	χ^2 (df)	p
블랙	105 (49.1)	29 (13.6)	45 (21.0)	25 (11.7)	1 (0.5)	9 (4.2)	214 (35.4)	63.40** (35)	0.002
다크 브라운	41 (31.3)	25 (19.1)	37 (28.2)	23 (17.6)	4 (3.1)	1 (0.8)	131 (21.7)		
브라운	44 (31.7)	21 (15.1)	33 (23.7)	39 (28.1)	2 (1.4)	-	139 (23.0)		
라이트브라운	16 (33.3)	7 (14.6)	15 (31.3)	9 (18.8)	1 (2.1)	-	48 (7.9)		
골드브라운	6 (25.0)	2 (8.3)	9 (37.5)	7 (29.2)	-	-	24 (4.0)		
오렌지브라운	11 (33.3)	4 (12.1)	7 (21.2)	8 (24.2)	2 (6.1)	1 (3.0)	33 (5.5)		
기타색	4 (57.1)	-	2 (28.6)	-	1 (14.3)	-	7 (1.2)		
탈색	4 (50.0)	2 (25.0)	2 (25.0)	-	-	-	8 (1.3)		
계	231 (38.2)	90 (14.9)	150 (24.8)	111 (18.4)	11 (1.8)	11 (1.8)	604 (100.0)		

** p<.0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헤어칼라와 헤어스타일 및 메이크업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헤어, 메이크업 칼라는 어떠한 지를 살펴보고 해

어칼라에 따른 헤어스타일 및 메이크업의 성향을 분석하여, 현대 소비자의 다양해져가고 있는 헤어칼라의 경향 속에서 헤어칼라 트렌드(Trend)와 개인 이미지가 고려된 헤어칼라 색상의 도출, 헤어칼라에 따른 헤어스타일 및 메이크업 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강릉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여성 604명을 대상으로 2004년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설문조사 하였고,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설문지를 활용한 질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Chi-square 검증을 하였다.

헤어칼라에 따른 헤어스타일 및 메이크업 성향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헤어칼라에 대한 선호도는 블랙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브라운, 다크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 골드 브라운, 부분 탈색, 레드 브라운, 원색계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블랙을, 연령이 높을수록 브라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기혼 여성은 미혼 여성보다 다크 브라운을($p < .05$), 직업별로는 학생들의 경우는 블랙을, 주부는 브라운을, 판매영업직/서비스직 여성은 오렌지 브라운을 선호하였다($p < .05$).

2) 여성들의 머리길이는 미듬 정도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롱, 숏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머리길이가 길었으며($p < .001$)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머리가 길었다($p < .001$). 직업별로는 학생의 경우가 머리길이가 길었으며 주부는 중간이거나 짧았다($p < .01$)

3) 헤어스타일의 유형은 스트레이트 유형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굵은 웨이브, 중간 웨이브, 롤 스트레이트, 강한 웨이브와 기타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24세 여성은 스트레이트를, 35-39세 여성은 굵은 웨이브가 많은 편이었으며($p < .001$),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굵은 웨이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학생은 스트레이트를 주부는 굵은 웨이브 유형이 많

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4) 헤어칼라와 헤어스타일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헤어칼라에 따른 머리길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헤어스타일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헤어칼라가 블랙인 여성은 스트레이트 유형이 많았으며, 골드브라운인 여성은 굽은 웨이브 유형이 많은 편이었다.

5) 헤어칼라에 따른 메이크업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헤어칼라에 따른 메이크업 정도, 섀도우 색상, 메이크업 시 포인트 주는 부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헤어칼라에 따라 즐겨하는 립스틱 색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헤어칼라가 블랙인 여성은 기초화장만 하며, 섀도우는 핑크계열이 전반적이거나 다른 여성에 비해 블루 계열도 많은 편이다. 립스틱 색상은 투명을 많이 사용하며, 눈에 포인트를 많이 준다.

2) 헤어칼라가 다크 브라운인 여성은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네추럴하게 하고, 섀도우 색상은 브라운을 많이 사용하며, 립스틱색상은 핑크와 브라운 계열을, 그리고 눈에 포인트를 준다.

3) 헤어칼라가 브라운인 여성은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네추럴하게 하고, 섀도우 색상은 핑크와 브라운을, 립스틱은 핑크와 오렌지색상, 그리고 눈에 포인트를 준다.

4) 헤어칼라가 라이트 브라운인 여성은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네추럴하게 하고, 섀도우 색상은 브라운 계열을, 립스틱은 핑크계열을, 그리고 눈에 포인트를 준다.

5) 헤어칼라가 골드 브라운인 여성은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네추럴하게 하고, 섀도우 색상은 핑크계열을, 립스틱은 레드 계열을, 다른 헤어칼라의 여성에 비해 입술에 포인트를 준다.

6) 헤어칼라가 오렌지인 여성은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네추럴하게 하고, 섀도우와 립스틱색상은 핑크계열을 많이 사용하며, 눈에 포인트를 준다.

7) 헤어칼라가 부분탈색인 여성은 기초화장만 하는 여성이 많으며, 섀도우색상은 브라운색상을, 립스틱색상은 핑크 색상을, 입술에 포인트를 준다고 나타났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헤어, 메이크업 성향이 네추럴하게 나타난 것은 최근 웰빙(well-being)이라는 문화적 흐름으로 인하여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주의적 성향이 트렌드(trend)로 자리 잡음으로써 헤어와 메이크업도 깨끗한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연한 색조를 이용한 자연스런 칼라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헤어와 메이크업은 그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 스타일이 다양하게 달라지는데, 이렇듯 그 시대의 트렌드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헤어와 메이크업의 칼라를 적절하게 조화시킨다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물론 한층 더 세련된 모습으로 변화 될 것이라고 본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를 전국이 아닌, 강릉이라는 중소도시에 국한 되었다는 점과, 헤어 칼라는 특히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겨울과 초봄의 쌀쌀한 기후에 조사되어 밝은 헤어칼라가 많이 나오지 못한 점이 아쉽다. 후속 연구에서는 어느 하나의 도시가 아닌 여러 도시에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지역, 연령과 직업, 계절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헤어나 메이크업은 질문 방법에 따라 연구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므로 향후 연구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준이나 척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저서

김복희(1998) 「뉴-피부미용학」 양생의학사.

김희숙, 이은임(1996)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대한 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편저(1994) 「피부과학」 서울출판사.

이학재(1994) 「분장의길」 자유문학사.

황정원(2002) 「헤어셋팅」 현문사.

황희순(1996) 「미용학개론」 청구문화사.

황현(2002) 「The Secret of Hair Up Styling」 (주)삶과 문화.

2. 학위논문

김양휴(1995) “패션 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노효경(2001) “얼굴이미지 구축과 색조화장의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나광주(1989) “의욕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신명자(2001) “여대생의 미용행태 및 그에 따른 건강위해 실태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미자(2000) “미용 관련학과 학생들의 염색제에 대한 의식조사” 석사학위논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윤소영(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이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나경(1999) “현대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대학원.
- 이선주(2000)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채의 효과와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이연희(2001) “색채화장이 얼굴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화순(1992) “한국여성의 Make-up 조형성에 관한 연구-얼굴형에 적합한 화장색조와 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조기여(1997) “자기 효능감, 퍼스널스페이스, 의복 근접도, 화장 근접도와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3. 월간지 및 회보

- 김경인, 송경석, 최유미, 황성민(2000. 3) “립스틱 제품에 나타난 한국인의 선호사상 범위와 특성”태평양 기술연구센터 자료집.
- 라미화장품회보(2001) “2001 겨울 메이크업 패턴” 통권83호.
- 이명희, 강승희 (1998. 8. 22) “장신구와 재킷색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111-1121.
- Beauty Club Magazine(2003. 11)

4. 인터넷

www.beautyi.com

www.onhair.co.kr

www.dongkang.ac.kr

ABSTRACT

The study on hair style and make up according to hair color

An, Joo Young

Major in Make-up. Stylist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

Sungshin Women's University

A total fashion including makeup, hair and fashion can't exist without color and the harmony of color is getting more important.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out how hair color ,makeup and hair style are closely related one another. To conduct this study, first try to find how the color of hair and make up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age and analyze the inclinations of hair style and makeup according to hair col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viding fundamental information which can help not only produce hair style and makeup going well with their hair color but also express the hair color considering individual image and new trend in a variety of hair colors.

The 604 subjects are in their 20s to 50s and reside in Gang nueng.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1, 2004 to April ,14 2004. To conduct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which was made by the researcher was used and collected data were testified by frequency, percentage and Chi-square by using spss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on makeup inclinations and hair style according to hair color are as followed

1. Their most preferential hair color is black, accounting for 35.4% and brown, dark brown, light brown, orange brown, gold brown, partial decoloration, red brown, primary color in order. It was showed that the younger age group have more preference for black while the older age group have preference for brown ($p < .05$).

2. In the length of their hair, the woman accounting for 50,5% like medium length and long, short in order. The younger age women have longer hair and single woman also have longer hair than married women. In their jobs, students have longer hair while house wives have medium or short hair.

3. Strait hair style accounting for 38.2% was most popular and thick wave , medium wave, roll wave, roll straight, strong wave are in order. The women whose age are between 20 and 24 have more straight hair style and age are between 35 and 39 have more thick wave style. And also students have more straight hair style but house wives have more thick wave style

4. After surveying the results of any relation between hair color and inclination of hair style, there in no big difference in the length of hair to hair color but the women whose hair color is black have more straight hair style and gold brown have more thick wave style

5. After studying the results of any relation between makeup inclinations and hair color, There is no big difference makeup, shadow color and pointing part according to hair color but different lipstick color were used for each hair style

The final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ed

1. The women whose hair color is black only put on base make up, they also use more brown shadow and colorless lipstick. They stress their eyes.

2. The women whose hair color is dark brown put on their make up show generally natural looks. they also use brown shadow and pink and

brown lipstick. They stress their eyes.

3 The women who has brown hair color also want generally natural looks in painting their faces. They use pink and brown shadow and pink and orange lipstick. they stress their eyes.

4. The women whose hair color is light brown put on their make up more naturally. And they use more brown shadow and pink color lipstick. They stress their eyes.

5. The women whose hair color is gold brown also put on their make up more naturally. And they use more pink shadow and red lipstick. They stress their lips than others.

6. The women whose hair color is orange also show natural make up. And they more use pink color shadow and lipstick. They stress their eyes.

7. The women who has bleached partially. And they use brown color shadow and pink lipstick. The stress their lips.

As analyzed above, the main reason of this results is that naturalistic trend has been newly established by current cultural trend which is called "well-being". As a result, people use more thin natural color to show their clean image. Hair and make up are changed variously according to the current of the time. As mentioned before, if you can figure out the current of the time and how to coordinate hair and make up, you can change the image that you really want and remain refined image forever.

부 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헤어 칼라와 메이크업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석사학위 논문에 쓰여질 자료로 사용 됩니다.

이 조사는 정답과 오답이 없으므로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결과는 연구를 위한 통계적 자료에만 쓰이고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신여자 대학교 조형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스타일리스트 전공

연구자: 안 주 영
지도교수: 김 차 애

* 다음 문항에서 해당되는 곳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

1.나이

- 1)20~24 2)25~29 3)30~34 4)35~39 5)40~

2.결혼의 유무

- 1) 미혼 2)기혼

3.직업

- 1)학생 2)전문 기술직 3)생산직 4)행정 사무직 5)판매 영업직 6)연구원
7)교사.교수 8)은행원 9)간호사 10)서비스직 11)예술계통 12)주부
13)자영업 14)무직

.....메이크업에 관한 질문.....

1.메이크업하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 1)기초화장만 2)피부화장만 3)네추럴 하게 4)진하게
5)포인트만 준다

2.즐거하는 세도우 칼라는 어떤 계열입니까?

- 1)브라운 계열 2)핑크 계열 3)피플 계열 4)그레이 계열 5)블루 계열
6)그린 계열 7)오렌지 계열 8)블랙 계열 9)기타 계열

3.즐거하는 립스틱 칼라는 어떤 계열입니까?

- 1)진한브라운 계열 2)브라운 계열 3)베이지 계열 4)핑크 계열
- 5)오렌지 계열 6)레드 계열 7)투명 8)기타

4.메이크업시 포인트 주는 부분은 어디 입니까?

- 1)눈 2)입술 3)피부 4)없다 5)전체적으로 진하게

.....헤어에 관한 질문.....

1.자신의 헤어칼라는 어떤 것 입니까?

- 1)블랙 2)다크브라운 3)브라운 4)라이트브라운 5)골드브라운 6)오렌지브라운
- 7)레드브라운 8)회색계열 9)원색계열 10)부분탈색 11)전체탈색 12)기타

2.나의 머리길이형태는 어떠합니까?

- 1)롱 (어깨선+3인치이상) 2)미듐 (어깨선 정도의 길이) 3)숏 (목선정도)

3.나의 헤어스타일 유형은 어떠합니까?

- 1)스트레이트 유형 2)롤 스트레이트 유형 3)굵은웨이브 유형
- 4) 중간웨이브유형 5)강한웨이브 유형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